



진주 시립연명도서관



FSC 인증받은 친환경 용지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을 생각합니다.

www.gyeongnam.go.kr

www.gyeongnam.go.kr

GYEONGNAM
LIBRARY
MAGAZINE

48

통권 제48호
30권 1호
vol.48

도서관 가는 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

경남대표도서관
Gyeongnam 대표 도서관

Contents

Vol.48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 종합소식지 「도서관 가는 길」
통권 제48호 제30권 1호

발행년월	2023년 4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외창구 사림로45번길 59 055)254-4811 팩스 055)254-4819
대표전화	055)254-4811 팩스 055)254-4819
발간등록번호	76-6481183-00001-09
편집·인쇄	에딧

04

칼럼

경남대표도서관 양은주 관장

08

책과 사람

길위의 인문학 in 남해
지역작가소개 신지은 작가

15

사서추천도서

18

도서관 탐방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도서관 책담
성남시 구미도서관
숲속책마실작은도서관

26

특집기사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30

소식 & 행사

도내 도서관 소식
경상남도 공공도서관 관장님 동정
신규 개관 도서관
도내 도서관 주요행사

42

클마당

49

경남지역
공공도서관목록

50

독자참여



BOOK & BOOKMARK

내가 만난 책
그리고 책갈피 이야기

Column



writer

경남대표도서관
양은주 관장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같이 필연적인 만남에서 학창시절에 우정을 나누었던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이름과 얼굴조차도 가물 가물한 사람, 지금은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문득 떠오르는 사람 등 이렇게 다양한 만남과 인연 속에서 우리네 인생무대는 펼쳐진다.

책과의 만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준 책에서부터 읽기는 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책에 이르기까지 참 가지각색이다. 작년 10월경 어느 날 그 때부터 인연이 이어져 온 한 친구가 여성중앙 좋은 책 읽기를 꾸준히 실천 중인데 나보고 경남대표도서관으로 재직 중이니 아무래도 책에 대한 시각이 일반인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꼭 읽고 싶은 좋은 책 100권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나로서는 참 난감한 숙제였다. 사실 지금까지 읽어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특별히 책을 남들보다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또다시 친구의



간절한 요청이 왔길래 이제는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나의 책과의 인연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한다.

책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책갈피라는 게 있다. 책의 어떤 페이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에 꽂아놓는 얇은 판 형태의 물건이다.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책갈피가 존재한다. 빛깔 고운 색으로 만든 실로 수놓은 장식형 책갈피부터 황금색 얇은 금속으로 만든 것까지 참 다채로운 형태와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 지금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추억의 책갈피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큰 아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아백 선물이라고 사 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황금색 금속 책갈피인데 도깨비처럼 상상 속 동물의 얼굴을 재미있게 형상화한 도안이 그려져 있어 오랜 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금은 빛이 많이 바랬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책과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이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쁜 호랑이와 사슴 그림에 한시가 멋들어서가 어우러진 자연 속 한 폭의 풍경화로 만들어진 책갈피이다. 세심하게 직접 붓으로 그려진 그 정성이 예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훌륭한 전통적 작품이다. 2021년 송년모임에서 이 책갈피를 선물하여 주신 분은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시면서 경남도 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동료직원한테 만 가지 재주를 가진 분이라고 불리운다. 직원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노란 문서 책표지에 적힌 그분의 글씨는 보는 이가 탄복할 정도로 깊은 내공과 필력을 자랑한다. 그밖에도 취미로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또 다른 한 취미가 그림이라는 것인데 수준이 가히 프로급이다. 요즘은 이 책갈피를 즐겨 애용하고 있는데 따뜻하고 정겨운 그분의 마음이 책갈피를 통하여 전해 오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초등학교 시절 나뭇잎으로 만든 푸른 책갈피가 생각난다. 집이나 학교근처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푸른 버드나무 잎이나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추억의 책갈피가 있다.

안시와 풍경화로 만들어진 책갈피, 초등학교 시절 만든 나뭇잎 책갈피, 그리고 큰아들이 수학여행 선물로 준 황금색 금속 책갈피이다.

은형임. 고운 단풍나무 잎을 고이 따서 교과서, 전과, 위인전기 등 책 속에 살짝 넣어두고 얼마간 잊어버렸다가 우연히 책 속에 들어있는 예쁘게 빛바랜 나뭇잎을 보고 살포시 웃음지던 그때의 추억이 생각난다. 나에게도 그 푸른 책갈피는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언젠가는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벗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책갈피가 끼여져 있는 자리에는 오래 감동적인 문장이나 문구라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거나 다시 읽어야 할 책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신성한 약속의 표시이기도 했다.

이제는 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책갈피 속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내가 친구에게 추천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춘기 중학교 시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너무나 슬프고 또 아픈 첫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존 골즈워디의 '사과나무'라는 단편소설이었다. 당시 고등학교생이던 누나의 책꽂이에 있던 것으로 깊은 호기심에서 몰래 읽어본 기억인데 기억이 가물거울하지만 대강의 스토리는 이러했다. 5월 사과꽃이 예쁘게 필 무렵 도시에 사는 잘생긴 청년 애서스트는 대학 졸업여행으로 한 시골 마을로 놀러 왔는데 거기에서 열일곱살 너무나 순박한 예쁜 소녀인 메간을 만나 사과나무 아래서 짧은 기간 깊은 사랑에 빠진다. 런던에 가서 결혼하여 같이 살지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사 크리스티
[해문출판사, 2002]

곧은 약속을 하고 도시로 떠난 청년은 곧 이 결혼에 회의를 느낀다. 청년을 기다리다 못해 도시로 찾아온 메간을 보고 청년은 이미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외면하면서 둘은 영원히 이별하고 만다. 다음 해에 청년은 매력적인 도시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세월은 흘러 결혼기념일인 은혼식을 맞아 우연히 같이 여행을 갔는데 작은 도로 옆에 생화가 놓인 한 작은 무덤을 발견하고 그 옛날 그 소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 장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회상에 잠긴다. 주위에 있는 노인분에게 그 무덤의 주인공을 물어보니 그 옛날 도시에 잘생긴 청년이 놀러 왔는데 너무나 좋아해서 도시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배신에 실망하여 정신 줄을 놓고 멍하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그 소녀가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진부해 보이는 첫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사과나무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중학생인 나의 맘을 송두리째 빼앗긴 격정의 스토리는 크나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또 특별히 기억나는 나머지 도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역시 중학교 때 읽은 유명한 추리소설로 인디언 인형의 노래와 가사에 딱 맞는 사건 전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슬막하는 스토리가 엄청난 감동을 준 작품으로 생생하게 기억한다.



『칼의 노래』
김원
[문학동네, 2012]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숨결을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낸 김원의 '칼의 노래'와 TV드라마로도 상영된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역사의 기록을 찾아 화려하게 부활시킨 최인호의 '해신', 영어를 위치 중심으로 문법체계를 혁신적 시각으로 접근한 박기영의 '알기쉬운 우리말 분석영어' 등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0여권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속제를 열렁뿔렁 마무리했지만 내 인생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책과의 만남을 두고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 영역과 한계가 어딘지도 모르는 우주의 비밀까지도 풀려는 시대에 책은 우리 선조의 지식과 정보를 후세에 전달해주는 소중한 도구이자 가장 훌륭한 지혜의 보고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책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위대한 기술과 과학적 성취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이와 발명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나 대나무를 통하여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기능을 다하였고 현재의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전자도서(e-book), 오디오 북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나타나 사람과 책과 만남의 기회를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책을 직접 소개하고 알리는 서보 보완책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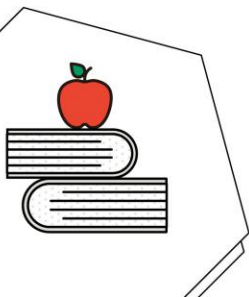


『해신』
최인호
[벨리온, 2003]

쏟아지는 책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과 책을 같이하는 올바른 책의 선택과 독서를 통하여 책을 자신의 인생의 든든한 응원군이자 훌륭한 벗이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내 인생의 꼭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버킷리스트 1호는 1주일에 책 한 권 읽기이다. 나로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작가의 생각과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좋은 책을 읽고 난 후의 다가오는 기분은 등산에서 정상에 발을 시원함과 통쾌함 그 느낌과 비슷하다. 게임이나 오락은 그 순간 찰나의 즐거움은 줄 수는 있어도 끝나고 나면 허무감이 밀려온다. 우리가 독서를 통하여 인생의 온온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면 어떻게 생각한단. 앞으로 나의 인생에는 또 어떠한 책이 머물러 감동과 느낌으로 다가올지 상상하면 설렘과 잔잔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오른다. 끝으로 한 유명한 독서 명언을 소개하면서 미미한 나의 책과 책갈피 이야기를 접습니다.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우 회장



길 위의 인문학 in 남해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을 활용하여 인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인문학의
향유와 일상화를 추구한다.

인문학자들과 주민들이

인문학 강연 및 탐방에 함께 참여하여
인문학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남해도서관, 남해화전도서관에서는
각각 10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For
10
Years

경상남도 교육청 남해도서관

1984년 11월 3일에 개관한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강зал, 북카페, 갤러리 꿈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2,0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남해도서관은 2013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해왔다. 2013년 <남해, 섬 유배객의 문학 흔을
따라사>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014년 <임진왜란의
시대상과 주요인물 탐구>, 2015년 <쉬운 인문학, 즐거운
인문학, 길 위에서 만나다>, 2016년 지역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 미래의 희망찾기, 인문학>, 2017년
<남해바다, 내 꿈의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는 시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 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이 지속되었고 어느새 2022년에는 4번째
시집까지 발간하게 되었다.



남해군은 노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중장년,
노년층의 참가가 많은 편이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시 쓰기에 대한
열정으로 시 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남해에 대한
애정과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시집출간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시낭송회 및
출판기념회를 가지기도 했다. <길 위의 치유 시쓰기-
온기 나눔 시집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발간된 시집은
지역주민 15인의 공동시집으로 수강생들의 창작
시낭송과 함께 최고령 수강생이 색소폰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사업을 장기간동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담당자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처음 하면서 시집 출간 시 교정보는 작업이 쉽지 않아 시집이 출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이 많이 쓰여 애를 먹기도 하는 등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본인 시가 실린 시집을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①



남해화전도서관

화전도서관은 2009년 7월 30일 개관하였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화전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비롯하여 3개의 강의실과 사회의실, 열람실, 다목적실과 미디어창작실 등이 있으며, 아동 및 일반도서 71,332권, 비도서자료 1,269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6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항토주변 역사 위인의 인문학적 고찰>을 시작으로 2017년 남해 바래길의 역사를 배우는 <길따라 이야기따라! 느낌의 미학으로 만나는 감성인문학>, 2019년 <남해의 길 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까?> 등을 진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수필 함께 쓰기'라는 주제로 <남해섬길 위에서 water(수필)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2021년에는 우수도서관으로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처음 프로그램 기획 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사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강자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당시 남해문화회 회장님인 시인 김현근 선생님, 제3회 김만중 문학상 금상을 수상한 소설가 임종욱 선생님, 그리고 남해가 고향이고 귀촌 준비중이던 천강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수필가 김희자 선생님을 초청하여 2020년 첫 번째 이야기부터 3년간 수필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화전도서관의 <남해섬길 위에서 water(수필)하다>에는 매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다.

취준생부터 은퇴후 귀향한 수강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수강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러나 회차가 진행될수록 소재를 정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다. 중도포기하는 수강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강사님들은 수강생들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다. 수필가 김희자선생님은 강연과 수강생 지도에 보람을 느껴 대구에서 남해로 귀향하기도 했다. 이런 강사님들의 열정이 장기간동안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김현근 선생님의 권유로 수강생의 작품이 장서신문인 남해미래신문에 게재되어 수강생들이 보다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담당자는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한 편의 수필작품들이 모여 한 권의 수필집이 탄생하기까지 수강생들과 강사님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모두 보람찬 순간이며,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한 편의 수필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했던 수강생이 지역문인으로 성장하여 군민들에게 화전도서관과 인문학이 지역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고 남해군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치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②



Interview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신지은

양산에서 활동하며,
소외된 자들을 향한 포근한 시선으로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신지은 작가를

아직은 차가운 공기가 뻗도는
2월의 어느 날 양산의 한 책방에서
만났다.



양산에서 활동중인 신지은 작가는 <춤추는 부처님>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동화작가로의 삶을 시작했다. <꼬리뿔즈>, <어름베리>, <코를 잃어버린 아이 토아> 등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22년에는 <빈 강통 탐정단의 비밀수첩>이 양산시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발한 소재를 바탕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신지은 작가를 만나보았다.

작가가 된 계기가 뭔가요?

부산에 '글나라'라고 동화를 가르치는 곳이 있었어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더니 다들 열심히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써서 신춘문예에 냈더니 당선되었습니. 참 우연찮게 가서 우연찮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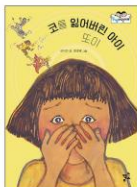
시작이 아동문학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성장상 따뜻한함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도 하고, 평소 소재가 떠오를 때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린이로 기울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해서 고전 소설을 접하다보니 소재 선정 시에도 그렇고 작가가 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남사당패를 공부했는데 그걸 주제로 한 <춤추는 부처님>이라는 동화로 신춘문예에도 당선되었구요. 지금도 대학원에서 배웠던 걸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어름베리』
신지은
(보라, 2019)

『코를 잃어버린 아이 토아』
신지은
(물초, 2021)



『빈 강통 탐정단의 비밀수첩』
신지은
(카다라, 2021)



지금까지 내신 책들을 보면 소재가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남사당패를 소재로 한 <어름베리>, 외국 아이 이야기인 <코를 잃어버린 아이 토아>, 이번 책은 미숙아 이야기까지, 소재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쪽이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소외되어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지에서 소재를 많이 발굴하기도 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영향도 많이 받았구요. <코를 잃어버린 아이 토아>의 경우는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원에 가면 아이들이 팔찌를 팔러 오거든요. 거기에 코를 다친 아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금방 치료했을텐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원에 들어가 소원을 비는데 그 아이는 사원에 가장 자주 오면서도 소원을 빌러 사원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거라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쓰게 되었어요.

이번 책인 <비밀 탐정단의 비밀수첩>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저도 사실 미숙아를 낳았어요. 우리가 미숙아를 살려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건강할 때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경험을 반영하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내세우고 싶었던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런데 독자들은 또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동생을 맞이하는 아이의 심정이 주제 같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가족의 소중함이 와닿았다는 분도 있고, 작가가 의도하고 글을 써도 독자가 다른 이야기를 발견을 하고, 또 독자만의 소통을 통해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작가로서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다음 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는 중국어 조전속 소학교를 배경으로 남한, 북한, 조전속 아이와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발이 세 개인 고양이 이야기가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조금은 소외되고 아픈 구석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구요 우정이가기도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판타지를 좋아해 그런 요소도 넣었습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린이들에게 친구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 말해주고 싶어요. 왕따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좀 힘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있는 아이들이 많으면 왕따가 다 없어질 거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약한 편이라 친구들이 놀리면 맞서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절 만만하게 대하지 않기 시작했구요. 도서관이 좋은 게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책 속에서 위로도 받고, 내 길을 찾기도 하구요. 또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 기준도 잡아서 타인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들이 날 괴롭히도록 놔두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도서관이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도서관과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길러 주시기란,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❶



장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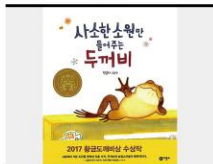
양산 안녕고래야 책방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역북2길 7-7
월요일 11:00~17:00 / 토 11:00~19:00 / 일 휴무

그림책 위주의 큐레이팅 시정입니다.
시, 소설, 에세이 및 문도서들을 그림책과 함께 들여다보며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동네책방입니다.

사서추천도서 _ 어린이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권자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김미영

학교를 가다 두꺼비를 구해준 훈이와 이런 훈이가 고마워 사소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두꺼비! 훈이의 사소한 소원을 위한 소원 3가지들 모두 거절할 두꺼비는 사소한 물건인 지우개 만드는 소원을 들어준다.

훈이가 단 한 번 뿐인 기회를 친구를 위해 쓰면서 이적이고 사소한 소원인 지우개로 어린이의 가장 큰 문제인 '책장구의 화해'를 가져온다.

두꺼비의 지혜로운 대답 속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규칙을 지키고 결코 사소한지 않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또한 훈이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 책 속에 숨어 있는 책방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리보와 앤 어른장굴, 해마 그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김금지

"만능해마들이 줄거움과 안전을 책임지는 어른들의 친구, 리보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보'는 도서관 리비에서 이용자들이 찾는 도서관 정보를 검색하고, 서가 위치까지 훈이를 출력해주는 안내 로봇이다. 이용자들의 감정을 읽고 소통해주는 학습도 가능하다. 2층 어린이 자료실에는 예뻐요 속 저장된 수만 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로봇 '앤'이 있다. 엄청난 양의 문학작품을 읽고 학습해 작가처럼 이야기를 짓는 능력도 있고 가끔 아이들의 고민 상담도 들어준다.

평화롭던 일요일, 도서관이 갑자기 바이러스 '플루마'로 인해 문을 닫게 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운영을 중단한다. 도서관이 봉쇄되고 사람들의 소통이 끊어질 때 리보와 앤이 도서관에 살림과 정서까지 계속 나타난다. 소통들이 떨어진다면 이상 감지소 시스템 초기화까지 될 수 있어 리보와 앤은 평소처럼 일을 하며, 도서관을 방문객들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던 한 아이 '도한'이가 리보를 만나러 찾아온다.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도서관 문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림과 정서까지 계속 나타난다. 소통들이 떨어진다면 이상 감지소 시스템 초기화까지 될 수 있어 리보와 앤은 평소처럼 일을 하며, 도서관을 방문객들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던 한 아이 '도한'이가 리보를 만나러 찾아온다.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도서관 문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림과 정서까지 계속 나타난다. 소통들이 떨어진다면 이상 감지소 시스템 초기화까지 될 수 있어 리보와 앤은 평소처럼 일을 하며, 도서관을 방문객들 사람들을 기다린다.

평온 통하지만 코로나19를 겪었던 도서관과 그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지난날들이 자신에게 떠올라 지고 힘들었던 마음을 다독여준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톱



내서도서관
이연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하면 된다."

말을 더듬는 주인공은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어느 발표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는 속상했고, 그런 마음을 본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동네의 아름다운 강가로 간다. 주인공은 무엇이고 강이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자리를 배우게 된다.

아버지와 강가에서의 시간을 보낸 뒤, 그는 더 이상 친구를 앞에서 말을 더듬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캐나다의 신인아 작가의 자전적 조전소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말을 더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한 인물이 자연과 아버지의 위로로 통해 스스로를 긍정하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성장선에 따라 달라지는 삽화를 보는 재미가 있으며, 유려하고 시적인 문장들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 글을 읽으면서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림책을 좋아하거나 책을 통해 위안을 받고싶다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가볍게 읽어보기를 바란다.

사서추천도서 _ 일반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 김하준



전혀도서관
안정희

이 책은 울음이 멈추고 상처가 아물게 하는 곳,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실타가 되는 초등학 교 보건실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에도 보건실을 찾는다. 보건교사인 저자는 운동장에서 뛰어들다 자기도 모르는 새 다쳐오는 아이부터, 아픈 곳이 마음이라 말하지 못하고 대신 아픈 핑계를 대며 오는 아이, 소아당뇨로 인해 하루에도 여러 번 주사바늘을 찌르느라 손끝에 굳은살이 박인 아이 등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가져가는 공간에서 보내는 일상을 들려준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비롯해 학교를 방문한 모든 이의 응급상황을 맞닥뜨리는 첫 번째 의료인이자, 학교를 지키는 단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갖는 책임감과 무게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유년기는 짧지만 그 시절에 겪는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상처는 자라서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오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아이들이 아주 다치지 않고, 조금의 상처도 없이 자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자라기를, 우는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첫 발일지 전현우



창원중앙도서관
박지혜

이 사서 청년들은 고달프다. 그리고 그 고달픈 청년들의 외곽에는 정상적인 최저시급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다운 대우를 얻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한 환경이 아직도 존재한다. 작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빠른 취업을 위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을 전진하게 된다. 편법으로 정월되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근로조건, 정직원과 노조의 차별, 산업재해를 당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울분,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기계속 나사의와 같은 취급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바쁜 첫 월급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아파트로 내고, 밀린 집세를 내고, 값진 인터넷노 복구(45쪽)하는, 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임에 책장을 잠시 덮어야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글을 놓지 않았던 작가는 SNS 게시글과 대담을 통해 2030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공론화하게 된다. "2030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간다는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책 읽기와 냉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225쪽)"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사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도서관은 살아 있다 도서관 여행자



영국도서관
배은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도서관을 주제로 한 책을 추천하면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뻔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지 않은 일들을 담은 이 책이 참 매력적이지 않은 분들이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저자는 지금도 세계 곳곳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여행자다. 그래서 책에는 사서의 시각과 이용자의 시각 모두로 바라본 도서관이 담겨 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책임, 도서관의 일상, 도서관 공간이 진화하는 모습 등 책 제목처럼 시뮬라크라스에 살아 있는 도서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절대 정속해야 할 것은 자료실에서 콘서트를 열고 레슬링 경기를 개최하니, 어떻게 살아 있지 않다고 할까! 도서관은 먼 과거부터 사람들 곁에 존재해왔다. 지금도 도서관은 살아 있다. 변화하는 시대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곳으로, 앞으로 도서관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누군가의 발걸음이 가벼워져 도서관으로 향한다면!

이완의 자세 김유담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구동은

염마를 찾았으면 세신 손님들의 삶과 그 삶이 보이는 다양한 물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충분한 나'로 존재하기. 그러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완의 자세, 이완의 시간. 책 표지는 혼잡으로 꾸민 배경에 담과 바구니, 매수전 등 목욕용품이 그려져 있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되던 어느 겨울이었다. 따뜻한 목욕탕이 그리웠고 바이러스로 긴장된 몸과 마음의 녹아내리기가 그리웠다. '재목부터가 노곤해, 온탕 같은 편안한 쉼일까?' 반가운 마음으로 독서를 시작했다. 남편을 잃고 사자까지 당해 어린 딸과 사지에 내몰린 염마는 '24시간 수불기마사위나'의 매일이 자리를 쓴다. 여담에서 자란 '나'는 무용을 배우면서 유명 무용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지만 출세할 무대에 오를 기회는 오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만수불기마사위나'의 아들 '만수'도 야구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더는 야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대와 다른 현실이나 손님들이 가진 사연 있는 몸(살)이 아픔에 굴하지 않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긍정을 피드린다. 또 주인공은 한 명이고 조건에 머물 머물어 훨씬 놓다는 점을 아르게 깨우치는 나와 만수는 그로 인해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충분한 나'가 될 준비를 한다. 책 속 인물들의 현실이 뜨겁게 아프지만 그만큼 생생함을 주는 '열망' 같은 책이라고 느꼈다. 더 잘해야 해, 더 빨리해야 해를 외치는 사회에서 자신을 담금질하는 현대인들에게 온몸의 긴장을 풀고 책은 온탕에서 녹아내릴 시간의 필요함을 느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힘을 얻는 한다는 유명한 격설을 또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Library Tour

우리는 전국의 특화된 도서관을 찾아보고 각 도서관마다의 다양한 특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오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도서관 책담, 성남시 구미도서관, 숲속책마실작은도서관, 이렇게 세 곳을 찾아보았다.

01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도서관 책담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1983년 11월 16일 개관하여 약 40여년간 도민들의 곁에서 독서와 지식정보공간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도서관은 2022년 10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남 지역의 작가와 책을 소개하는 <경남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창원도서관은 도서관 경영·시설환경 도서관 서비스 3개 영역에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22년 10월 28일 미래독서공간인 '책담'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3개 동의 도서관 건물은 각 책담, 꿈담, 해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책'을 읽고 '꿈'을 담아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지식의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책담은 청담기술과 도서관 콘텐츠를 융합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꿈담은 도민들의 꿈을 담은 평생학습 및 문화창작 공간, 휴게공간, 해담은 전시공간, 세미나장 등 다용도 공간, 행정서비스 구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책담을 건립하며 도민들에게 기존 도서관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를 가까운 지역도서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체험하기 힘든 미래교육의 활동을 손쉽게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변화하는 도서관 트렌드를 공간에 투영하고, 최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의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등 40여개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책담에서는 총 7종 35대의 로봇을 만날 수 있다. 안내로봇, 장서점검로봇, 책을 옮겨주는 자율 주행 운반 로봇 등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이용자를 맞이한다. 또한 디지털 가상현경과 아날로그 모래놀이를 합친 교육용 프로그램 '샌드 크래프트'와 VR체험을 하며 생각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토의 프로그램 'VR 포럼'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책담 1층은 사람과 로봇, 자연과 우주,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공유하는 소통·문화 공간으로 이용자를 맞이하고 안내해주는 안내로봇, 책임어주는 로봇 등 여러 종류의 로봇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실감형 영상이 펼쳐지는 대형 디지털월, 3D홀로그램, 지리정보기반 도서추천 시스템 등이 있다. 책담 2층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무한한 상상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최첨단 미래 독서 공간으로, 실감형 체험관과 VR 가상 독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맞춤형 디지털 북큐레이션, 디지털 영화를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누리는
시기술을 이용한 무인대출반납서비스로 365일 24시간
대출과 반납이 자유롭다.

전국적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일한
도서관이라 경기, 제주, 전북, 경북,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발
딛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개관 후 11, 12월 이용자 합계는 14만 2,62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이용자 수인 10만 8,413명보다 31.6%
증가했다. 또한 신규 가입자 수도 개관부터 2월까지의
합계는 3,468명으로 집계되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5.8% 증가하는 등 책담 개관으로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애로사항도 있다.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오고 있지만 최첨단 기술을 가진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면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 원격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고장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 처리 효율 향상에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도서관 담당자는 앞으로의 도서관은 책을 단순히
빌리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의 경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창원 도서관이 자리하고
공공성·개방성·지식 정보성 등 공공도서관 역할의 경계를
넘어 미래 가치와 이념을 앞장서 담아내며 지식의 빛으로
도민들의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❶



02

성남시 구미도서관

제55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구미도서관은 영어 원서만 2만권을 소장한 도서관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잉글리쉬 존, 북맨퀴즈
영어탐사대'운영, 증강현실(AR) 영어 동화책 체험존
운영 등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듣는 책, 치유적
이야기와 함께하는 독서 코칭', 실버 독서회, 도서관 열
매내공원과 연계한 생태·환경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술을 말하다' 등으로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효평으로 제55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08년에 개관한 구미도서관은 성남시 도서관장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 초부터 영어장서화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화교실, 세미나실,
어린이 가족 열람실, 장애인 열람실, 문헌정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만여권의 장서 중 2만권이
영어원서로 이용대상을 일반과 어린이로 구별하여
구성되어 있다.

구미도서관에서는 영어책 정보를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영어마당이라는 코너에서는 영어책





추천도서를 월별로 만날 수 있다. 또한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어 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르네상스프로그램은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리딩레벨진단 테스트, 독서퀴즈 제공 등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과 독서습관 확립을 돕는다. 르네상스에서 독서퀴즈를 지원하는 도서관에는 레벨별로 라벨링을 하여 해당 도서를 편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독서퀴즈를 활용하여 북퀴즈 영어탐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말반은 모집한 지 며칠 안되어 마감될 만큼 호황이다. 북퀴즈 영어탐사대는 영어책을 꾸준히 읽으며 어린이 스스로 책임은 습관을 기르고 독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린이는 참가 첫날 영어독서 수준을 확인하고, 권장 수준에 맞춰 영어책을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독서퀴즈를 통해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강현실 영어체험존에서는 AR 영어 동화책, AR 책카드를 경험할 수 있다. AR 책카드는 구미도서관 내에 있는 태블릿피스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AR 영어동화책은 미니 빔 프로젝터를 통해 투영되는 동화를 이야기 속 캐릭터 등과 직접 교감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화컨텐츠로 캐릭터와

실시간 상호작용하며 몰입하여 즐길 수 있다.

노령화에 따라 중장년, 노년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있다. 만 60세 이상을 겨냥한 실버독서회와 시니어를 위한 듣는 책 맞춤독서 북(Book)소리 독서회이다. 북(Book)소리 독서회는 오디오북을 활용한 독서 활동 강화로, 지정도서를 읽고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창의 활동과 토의 토론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정보를 공유, 공감한다. 2022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도서관과 관교노인복지관 두 곳에 수업을 개설했다.

도서관 옆에 있는 마네 과학공원을 활용하여 숲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환경 수업,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식물 키우기 등 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성남시 구미도서관은 각계각층 이용자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다양한 독서활동 지속,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도서관으로 시민들의 걸을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

Specialized Library



성남시의 다양한 특화도서관 알아보기



성남시 어린이도서관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08번길 42
규모: 지상 4층, 지하 3층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우주체험관 운영
- 전시실, 천체관측, 천문영상을 상영 등



성남시 테트라파크도서관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
규모: 지상 1층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울동공원 내에 위치한 그림책 특화 도서관



성남시 판교어린이도서관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75
규모: 지상 3층
둘레넷, 넷째 필요일, 영월 연휴 휴관
로봇체험관 운영
- VR, 코딩체험, 드론 운전, 로봇댄스 등



03

숲속책마실 작은도서관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LH 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부터 인력, 비품, 운영경비 지원 등을 통해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단순 책을 읽는 공간에서 일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LH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활동을 평가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제1회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대회 당일 투표와 심사를 통해 경남 창원시 자은센터빌리지 숲속책마실 작은도서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2020년 개관하여 올해로 3년차 운영 중인 숲속책마실 작은도서관은 '공간+사람. 이어진 행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돋보였다. 2021년 시작된 일주민 독서모임인 은공감독서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만남을 이어갔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은공감독서회에서는 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물론, 독서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하며 도서관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었다.

독서동아리 지원센터에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금과 저자 초청 강연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독서동아리 회원들에게 그림책을 주제로 한 유지컬 공연 관람과 도서관에 추가로 비치할 그림책 등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창원에서 활동 중인 김문주 동화작가님을 초청하여 동화 써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서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 갔다. 손뜨개 동아리,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 동아리, 산행 동아리 등 도서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웃이 확장되었다. 또한 한살림 진해,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살림 진해와는 어린이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지역의 초중등생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판매자로 참여하고, 지역민들의 기부물품과 재능기부로 판매부스가 꾸러졌다. 한살림진해와 지속적으로 공동주최를 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독서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지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었다. 창원예술문화충연합회 소속 일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매주 아이들을 위한 한자교실, 창원에서 지원을 받은 생활과학교실을 진행하기도 하고, LH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금으로 통해 다양한 계층에 문화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라탄공예 바구니 만들기, 실크스크린 아트를 통한 작은도서관 로고



디자인과 에코백 만들기, 손뜨개 기초강좌 등과 어린이를 위한 아동 미술학교, 아동요리교실 등도 진행했다.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이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오래된 작은 도서관인 우성새마을 문고를 멘토로 삼아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많은 조언을 주고받기도 하고, 함께 역사/문화 지역 탐방 프로그램과 숲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숲속책마실작은도서관은 사람과 사람간의 이어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장이 되었다. 도서관 담당자의 열정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온갖 프로그램들을 유지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 결과 도서관을 매개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앞으로도 숲속책마실작은도서관이 책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①

숲속책마실도서관

자은 센터빌리지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 107동 1층 커뮤니티센터
개관 : 2020년 11월 2일
규모 : 122㎡, 5500여권 소장



대출인원 제한이 없어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이용 가능함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

강해통합도서관



강해통합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개시

2023년 1월 9일 (월) 오전 10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란 60,000권 이상의 전자책 콘텐츠를,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6일간 대량으로 제공하며, 5일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강해통합도서관 회원

대상도서 : 1.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6일간 대량으로 제공하며, 5일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6일간 대량으로 제공하며, 5일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1. 강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 (www.glnhlib.go.kr)에서 신청
2.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도서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문의 : 강해통합도서관 (055-250-1100) / 250-1100

강해통합도서관 | <http://www.glnhlib.go.kr>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고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도서관도 사람들의 밀집을 막기 위해 임시휴관을 하고 이용 인원에도 제한을 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 출입이 어려워지자 이용자들은 전자도서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 책을 빌리는 것과는 달리 전자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회원이라면 PC나 핸드폰으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은 소장형 전자도서 서비스이다. 소장형 전자도서 서비스는 기존 종이책처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 받아보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도서를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출판사에서 전자책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종이책과 같이 1권당 1명씩 대출이 가능하며, 이미 대출중인 도서의 경우 반납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최근에는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자도서의 이용 권한만 제공하는 것으로 대출 인원의 제한이 없어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이용가능하다. 또한 도서 구매철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 및 인기도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서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소장형 전자도서서비스와 달리 구독형 전자도서 서비스는

대출 건당 금액이 산정되어 지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장형 전자도서 서비스에는 경남통합전자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이 있다.

경남통합전자도서관은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대표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경남지자체 소속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만 이용가능하다. 경남대표도서관 또는 사·군 도서관 중 본인이 회원인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5권 대출가능하며 이용기간은 대출일 제의 14일 동안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공공도서관, 지혜의 바다, 지혜의 방) 대출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각 교육청 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아이콘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전자책은 5권, 대출기간은 7일간이며 오디오북, 전자잡지도 이용가능하다. 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하다. 외국어 등 다양한 강화도 들을 수 있다.

김해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해통합도서관 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며 기존 소장형 전자책 도서관과 동시

New Service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7만여권의 도서를 제공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신간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다. 대출권수는 1인당 7권으로 대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이용 가능하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된다. 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내 손 안에 도서관
전자도서관!



경남도내

도서관
소식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로봇은 없지만 도돌은 받고 싶어!

RFID무인대출반납시스템 열람!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은 시민의 선진화된 시스템 요구를 수용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RFID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RFID무인대출기 17기 및
자기대출반납시스템 4기의 추가 도입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긍정적 의견을
피드백 받고 있으며, 만성적 인력 부족의
문제도 일부 해소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의
독서환경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독서문화의
중심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고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학력인정 중학교과정 '글볼학교' 운영

만18세 이상 초등학교 소지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글볼학교는 중학교
1단계(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2023년
3월~12월까지 1년간 주 4일 연 450시간의
교육과정이 실시되며 급식을 포함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문해교육
중학교교육과정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중학학력 인정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3년간(1~3년제) 운영될
예정이며, 단계별 교육 기간의 2/3이상
출석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시험없이
중학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유아 또는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독서 공간 대여

1층 유아자료실에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한 독립적인 독서
공간 '안녕 오즈'를 마련하였다. 어린이들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일 3회(10:00, 13:00, 15:00) 운영한다.
한마루 화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선착순 방문, 전화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지혜동 리모델링 실시

이용자 편의 시설 확충

(구)주촌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이 자료실인
바다동에 이어 지혜동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지혜동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휴게실,
방음시설이 겸비된 강좌실 등의 확충으로
지혜의바다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3년 4월~10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바다동(자료실)은
정상 운영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독서친화 행사 운영>

진영도서관은 3월부터 다양한 독서
진행행사를 운영한다.
5년 이상 대출한 이용자 40명에게 독서복권
1매씩을 돌려 달형된 선물을 증정하는
<왕 없는 복권 Book>, 비가 오는 날
도시 대출한 이용자에게 친환경봉투를
도서 담아 드리는 <비 올때 안심 대출>,
경상남도교육청통합공공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추가기 이용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카톡 친구에게> 등 알차고
흥미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즐거운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영한빛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 운영

기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었던 1층
로비를 전시 서가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사서 추천 도서, 철학 북큐레이션, 역대
김해시 올해의 책 등을 전시 전시하고
창가에는 책과 함께 잠시 쉬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벽면에는 그림 및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밀양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유아, 초등 단계별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하남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독서습치 유발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단계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책임기, 신나게 책임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아이가책읽기 신나게책읽기는단계별
주제활동들을통해독서능력을신장하고다양한
독서의도서를 폭넓게읽어 독서관행을
방지하도록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를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 도서관과 친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밀양시립도서관

지역사찰 활성화 지원사업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북칸타타>
북칸타타(book+cantata)는 책과 음악이
함께한다는 뜻으로 강연자가 선정된 책에
대한 강연과 그에 연계된 연주와 함께
이행된다. 밀양시립도서관에서는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청학사점과 함께 북칸타타를 운영한다.

사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활성화>

사천도서관에서는 독서친화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북큐레이션 활성화에 앞장선다.
월별 테마에 맞게 도서를 큐레이팅하고
북큐레이션 서가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북큐레이션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추천도서를
10건 이상 읽고 감상평을 제출하면
상품증정하는 행사 등 북큐레이션 활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로봇 및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햇살이 내리쬐는 통유리를 줄일 수
있도록 책상을 비치하고, 전시 공간을
비롯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유아실 벽면에 벌집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신선했다.



안에서 자료실 신선했

책상을 포함한 예술도서(600)와 DVD,
간행물 등 도서 자료 비치되어
있으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신선했다.



산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상반기 평생학습, 발달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은 상반기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이별준비
월데이, 차근차근 배우는 책놀이, 쉽게
배우는 칼럼, 감성 힐링 낭송송, 꽃차

소믈리에, 부동산 교양 상식, 손칼
한타트, 어린이 한국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산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양산도서관, 동내책방을 더하다

양산도서관은 지역 동내책방과 협력하여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매월
동내책방 2곳(기쁘트리, 인생 고래야에서
추천하는 도서 10권과 책장지가 직접
전시구성에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진행으로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종합자료실에서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여 자연보호,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추천도서와 친환경 상품을 선보이며,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어린이의 마음 감성과
관련된 그림책을 이야기하는 소풍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전시에 소개되는 책들은 북큐레이션 참여
책방을 통해 구입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동내책방을
홍보하여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서관의 작은 동내책방을 보고싶다면
양산도서관을 방문하기를 권한다.



양산시립중앙도서관

▶ 2023년 양산시 <올해의 책> 선정
- 일반 부문: <엄마의 얼굴> 신한규 지
- 아동 부문: <엄마의 얼굴> <조국에 핀
도리지꽃> 엄상식 지
양산시립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책 읽기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양산의
시민자가 도서관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여

10개월 여 간 독서캠페인, 북콘서트, 독후감
공모전, 문학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일반 부문 선정도서 <신
의 그림>은 양산의 도자 문화,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도서로 책을 매개로 지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력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 생활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은 독서문화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원으로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4월 푸른책장공약과 7월 현악양장공약을
2층 책담마루에서 운영한다.

공원으로 반박적인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독서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진주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북콘서트, 도서발행 소식
북콘서트는 아이들의 인성 및 성장발달에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읽어주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림책 내용과 관련 있는 소품

창녕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남지도서관 인스타그램은 작년 개틀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도서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이용자들과의 소통의 창이 되었다.



올해는 도서관의 소식뿐 아니라 대장별
책개를 제공하는 '남지나 별책부록',
이용자 참여형 '지글 무슨 책 읽고 있어요?'
등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창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북큐레이션의 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에 맞춰 팔로워 이벤트도 마련했다.
남지도서관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인장을 하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다.
현재 진행 중이며 남지도서관의 소식과
책소개도 받고 선착순 받아가길 바란다.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구축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은 시간과 공간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24시간
도서 대출 반납이 가능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으로 최대 500권
이상의 도서를 적재하여 상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으로 책 읽는 문화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출책 프로젝트
'도서관에 올래(來)'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Zone)을
조성하여 청소년 전용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적으로 도서관 방문을 기록하는
출석체크 이벤트 '도서관에 올래(來)'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스탬프를 받는 '스탬프 투어' 그리고 4인
이상 청소년에게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는
수디움 '톡톡' 등 도서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을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예코
라이브러리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생태환경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음역과 함께는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인양곡 공원인 <인양 뚝>, 기후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퀴즈 응모 행사,
생태환경 관련 그림책 및 지구를 살리는
도서 전시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창원서관, LI 디자인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3 수상 명예
<전 세계 22개국 1,051명의 출품 작품 중
위너상 수상>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관장
황선경)은 3월 24일(금) 오후 5시 해운
새마을 개발한 LI(Library Identity)

디자인으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3(Asia Design Prize 2023)'에서
위너(WINNER)상을 수상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위너 프라이즈를
수상한 창원도서관은 미래 독서 공간인
'책담'을 새롭게 건립하면서 디자인업체
메가브랜드와 협력 개발했다. LI의 기조는
탐구의 색감인 노랑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의
빛이 흐르는 책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책으로
살의 평등을 실현한다. 지식 공간의 빛이
되어 도민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브랜드한 것이다.

마산회원도서관

<청소년 북(BOOK)툰을> 운영

마산회원도서관은 청소년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및
대출 이벤트를 운영한다. 3월 중 청소년
도서 코너 설치 이후 처음 대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대출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인근
학교 방문을 통한 회원가입 서비스 운영,
아니라 상반기에는 청소년 맞춤 책장,
하반기에는 청소년 독서 골든벨도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북(BOOK)툰을>을
통해 청소년들이 책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창원중앙도서관

'제55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창원중앙도서관은 2월 23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제55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창원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전시회>성료 등 도서관
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도서관사업소장(소장 안영태)은 개인으로
한국도서관감사대를 수여받아 창원시
도서관의 기관 및 개인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도서관 열 북콘서트 운영

창원중앙·성산·상남도서관에서는
가족단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북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콘서트는
책(Book)과 피크닉(Picnic)을 합친 것으로,
도서대출을 통한 도서 3권과 보드게임,
피크닉 도자기 등이 들어있는 북콘서
바구니를 주말동안 대여할 수 있다.

성산도서관

청년 공간 온(ON) 운영

성산도서관에서는 기존 별관 2층
독서모임실을 개방하여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운영한다.
그를스튜디오, 토론, 취업 준비를 위해 공간이
필요한 만19세~34세 청년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하면 된다. 모임
장소뿐만 아니라 노트북,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기기를 지원하고 노트북에는
영상편집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최운덕도서관

창원시 최운덕도서관은 2023년 3월 25일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운영한다. 개관 초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한정판 회원카드'를 제작 시민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며, 선착순 100명에는 음료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생일축하 케이크 그리기' 행사를 진행하며, 개관 당일에는 '가족체험행사', '축하떡 나눔', '영화상영', '개관일은 내 생일'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2023년 도서관 순회전시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 운영

함안도서관은 다가오는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서관 로비 공간 및 복도에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다양한 유리공예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테인드글라스의 이론강의와 더불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해바라기 번개차 만들기'를 운영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다양한 북큐레이션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 합천도서관에서는 지역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주제가 있는 서가',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이용자 추천 도서', '신간 도서' 등의 테마별 도서 전시를

통해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북큐레이션 운영을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읽을 책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용자에게 도서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늘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해 오신 분들에게는 독서 영역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영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2023. 통영 인문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주제별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 증진을 위해 통영 인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미술, 파블로 네루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심리학, 통영의 특징, 노년의 삶을 주제로 이용자들의 인문교양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꿈이랑도서관

2월 미각특화프로그램 운영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발렌타인데이 정성 가득 초콜릿 만들기' 강좌를 운영했다. 수업은 총 2회로 진행되었으며, 성인 12명 / 아동 12명이 참여하여 아몬드 소콜라, 파베초콜릿, 딸기홍두 등 예쁘고 맛있는 수제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하동 도서관

2023년 상반기 발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번 상반기 발방 프로그램은 독서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현대 시 감상, 글쓰는 하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계발의 숨씨를 발휘할 수 있는 실용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일반 성인인 대상으로 꽃꽂이 가득한 프랑스 자수, 아름다운 손글씨, 광목천 위에 피어나는 야생화, 심리상담 타로, 통통 튀는 우쿨렐레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어린이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대 능력향상을 도울이되는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코딩 프로그램도 주말에 만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공공도서관
관장님 동정

인사발령사할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박김미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우경량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곽혜영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송미청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최말숙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김금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권상태	밀양시립도서관	김효경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오순희	양산시 시립도서관	나유순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서민희	진해도서관	강문선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강선미	함안군립함일도서관	정석경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이은주		

공로연수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6.30.) 신애경



함안도서관
신속 이전 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함안도서관 자리 옮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재개관일	위치	건물규모
2023. 2. 28.(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지상 3층(연면적 2,464.38㎡)

특색

- ◆ 자수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무진공방> 운영
-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공존ECO> 코너 운영
- ◆ 웹툰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코믹스존> 운영

주요시설

- ◆ 1층[지혜를 원함(One+HAM)]: 로비, 라운지(휴련), 어린이자료실(아라누리), 공방(무진)
- ◆ 2층[당신을 위한(We+HAM)]: 일반자료실(가야누리), 라운지(잘아), 사무실, 동아리방(함초롱)
- ◆ 3층[미래에 고함(Go+HAM)]: 보존서고, 시청각실(함추출), 강좌실(통합방, 다함방), 자유학습실(넷별), 관장실, 행정실, 실험, 테라스 등



GYEONGNAM LIBRARY EVENTS

도내 도서관 주요행사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박형주 저자 강연

'초등 독서력을 키우는 읽기놀이'

- 일시 : 4. 12(수) 10:30 ~ 12:30
- 장소 : 거제도서관 대강좌실
- 참여대상 : 성인 40명
- 주요내용 : 『초등 독서력을 키우는 읽기놀이 일년 열두달』, 『공부머리 만드는 그림책놀이 일년 열두달』, 저자 박형주의 초등 독서력을 키우는 읽기놀이를 주제로 한 강연

거함

경상남도교육청 거함도서관

너와 나, 모두 알아가는 시간

- 일시 : 5. 20(토) 14:00 ~ 17:00
- 장소 : 2층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중학생 15명
- 주요내용 : mbti 검사를 통해 나에게 대해 알아보고 친구나 상대방에 알고보고, 서로 이해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

도서관 매직 라이브 쇼!

- 일시 : 5. 13(토) 10:00 ~ 11:00
- 장소 : 2층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유아 및 어린이 50명
- 주요내용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림자쇼 운영

고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취약계층 프로그램

- 기간 : 3월~7월
- 장소 : 각 대상별 협약기관
- 참여대상 : 경증치매노인, 시각장애인 등
- 주요내용 : '신명나는 건강 책놀이', '힐링 도서관 공작소'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메이커&미디어 프로그램

- 기간 : 3. 29. ~ 6. 24.
- 장소 : 1층 만학대실
- 참여대상 : 지역민
- 주요내용 : 공구는 3D프린터 공방 A, 공구는 레이저커팅기 공방 A, 기호탄탄 재봉틀 A, 나만의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유튜브 영상 촬영장비 바로 알기, 오늘부터 팟캐스트 DJ



저자와 함께하는 릴레이 강연

- 기간 : 4월 ~ 6월
- 장소 : 3층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지역민
- 주요내용 : 이희영 『별난지 불루』, (4.22(토) 14:00)
유실화 『수려 거북』, (4.23(일) 14:00)
천현우 『삿발일지』, (5.20(토) 14:00)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6.17(토) 14:00)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손으로 읽는 독서, 필사

- 기간 : 4월 ~ 11월
- 장소 : 종합자료실
- 참여대상 : 일반, 청소년 도서관회원 20명
- 주요내용 : 37기 도서 중 1권 선택하여 참여기간 안에 책 전체 필사 도전

울하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세계책의 날 행사

- 기간 : 4. 12. ~ 4. 23.
- 장소 : 울하도서관
- 참여대상 : 김해시민
- 주요내용 : 4개 분야 5개 프로그램 운영
(강연)진박 초등국어 공부법 저자, 최민지 그림책 작가
(공인)코믹메이킹문소(제형)복합소 만들기
(이벤트)어린이 도서 대출소, 패밀리룸 이용자 대상 체험
키트 배부

남해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캘러리 골길 『지역 작가 전시』

- 기간 : 1월 ~ 8월
- 장소 : 남해도서관 1층 캘러리 골길
- 참여대상 : 지역 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 주요내용 : 남해 지역에 활동 중인 예술가 (김은영, 엄홍성, 하길숙, 장유미, 이진만, 김은진 등) 및 예술단체(나들 캘리그라피 동호회) 작품 전시



밀양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기간 : 3월 ~ 6월
- 장소 : 신성 학교
- 참여대상 : 밀양 관내 중학생
- 주요내용 : [진로특강] 천종호 판사, 김재동 작가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오예민 교수(수의사) [일 서서 체험] 밀양도서관 담당 사서 운영



사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성인 인문학 프로그램> 경남의 건축

- 일시 : 6. 14.(수) 10:00~12:00
- 장소 : 사천도서관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성인 30명
- 주요내용 : 경남 총괄 건축가 하정도 강사를 초청하여 경남의 주요 건축물을 통한 지역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산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황기 가득 피우다

- 기간 : 4. 11. ~ 4. 16.
- 장소 : 1층 로비
- 참여대상 : 전체
- 주요내용 : 도서를 3권 이상 대출한 이용자에게 화분 증정(신청순 60명, 1인 1화)

자가대출반납기 참 쉬워요!

- 기간 : 4. 11. ~ 4. 30.
- 장소 : 1층 로비
- 참여대상 : 전체
- 주요내용 : 자가대출반납기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자동으로 제출한 이용자 5명을 추첨하여 기쁨을 증정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산청군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사업

- 기간 : 5월 ~ 11월
- 장소 : 산청지리산도서관 관내 학교
- 참여대상 : 도서관 이용자 및 관내 청소년
- 주요내용 : 한 걸음 책놀이터, 찾아가는 푸른인문학, 지리산 행복 글쓰기



양산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나를 발견하는 서양 미술

- 기간 : 6. 3. ~ 7. 8.
- 장소 : 지혜를 및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성인
- 주요내용 : 이미지의 시대! 서양미술사를 통해 소비되는 예술에 대한 감상과 탐구(미술의 언어, 20C 모더니즘의 시작, 추상미술, 오브제와 현대미술, 포스트 모던미술 등)



의령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음악에 꽃을 피우다

- 일시 : 4. 15.(토) 14:00
- 장소 : 의령도서관 책담마루
- 참여대상 :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온 가족이 즐기는 퓨전음악밴드 공연

진주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베베아 책놀이(초등지)

- 기간 : 3. 11. ~ 5. 13.(매주 토, 10:00~12:00)
- 장소 : 강좌실 2
- 참여대상 : 초등저, 20명
- 주요내용 : 다양한 주제로 선정된 그림책과 독후 활동으로 아이들이 일상 생활과 세상을 배우고 익히도록 도움, 일반적인 것에서 놀라움을 배우고 특별한 상상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책놀이 독서 프로그램

진주시립 도서관 공동

도서관 주간 행사

- 기간 : 4. 12. ~ 4. 29
- 장소 : 연암, 서부, 어린이전문, 비봉어린이, 도동어린이, 학신어린이, 남부어린이도서관
- 참여대상 : 진주시민
- 주요내용 : 인형극, 친환경 화분 만들기 체험, 대출권해 해체, 독사나무 만들기, 인권관련 도서전시 및 영화상영 등

연암도서관

찾아가는 문화교실

- 기간 : 4월 ~ 6월
- 장소 : 지역아동센터 2개소
- 참여대상 : 아동센터 초등학생
- 주요내용 : 책읽기 및 독후활동

남부어린이도서관

작가초청 특강

- 일시 : 5. 13.(토) 14시 ~ 16시
- 장소 : 문화교실
- 참여대상 : 초등학생 30명
- 주 제 명 : 경남은 어떻게 해결사가 되었을까?
- 초청강사 : <고양이 해결사 경남> 작가 홍민정



창녕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남지도서관 생활 속 인문학

- 일시 : 4. 22.(토) 14:00~16:00
- 장소 : 시청각실
- 참여대상 : 청소년 이상 지역 주민
- 주요내용 : 어린이 문해력 개선형 작가 초청 강연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경남 문학의 과거·현재·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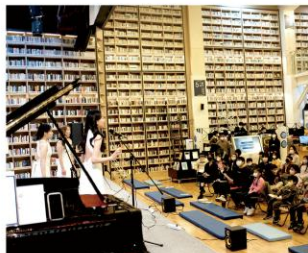
[강연: 경남을 만나다]

- 일시 : 4. 8.(토) 14:00 ~ 16:00
- 장소 : 무학전당
- 참여대상 : 지역주민 80명
- 주요내용 : 김달진 문학관과 연계한 '월하 김달진' 작가의 작품 세계와 생애 강연

마산자혜의바다도서관

상반기 테마가 있는 힐링공연

- 기간 : 4월 ~ 6월
- 장소 : 2층 지혜마루
- 참여대상 : 경남도민
- 주요내용 : 1) 책 읽어주는 음악회(4월 13일 목요일 오후7시)
2) 기후위기 주제 해설이 있는 클래식 (4월 22일 토요일 오후3시)
3) 토끼야 울굴 가져(5월 6일 토요일 오후3시)
4) (해설이 있는 음악회)100년 전 편지 (5월 13일 토요일 오후3시)
5) 내 이웃의 목소리 (16일10일 오후3시)
6) 내 이웃의 목소리 2(16일17일 오후3시)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진동 책마당

- 기간: 4월
- 장소: 진동도서관 자료실 및 강좌실
- 참여대상: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참여방법: 채민/비채민 병행
- 주요내용: 4월 도서관주간 및 과학의 달을 맞아 '책과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 (작가와의 만남, 책나눔 북카페, 스테인드글라스 순화전시 및 섹터 만들기 체험, 과학 테마 북큐레이션 등)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공연

【책담 힐링 공연】

- 기간: 4 ~ 8월 세 번째 토요일 15:00 ~ 15:40
- ※5월은 두 번째 토요일
- 장소: 책담 1층 공연터
- 참여대상: 지역주민
- 주요내용: 독주, 뮤지컬, 앙상블, 보컬 등 4가지 테마 공연 및 재능기부 공연



4.15.(토)	FOR FOUR	김기경의 프레데릭 앤 프란츠
5.13.(토)	재즈스트릿 / 마리아킴	재즈하루스
6.17.(토)	뮤지컬 배우 박민희의 프로젝트	뮤지컬 판타지아
7.15.(토)	마지막 소나타	김기경의 프레데릭 앤 프란츠
8.19.(토)	월드뮤직 프로젝트 / 동백유랑단	앙상블 하모니아

체험

【오래와 만나는 세상, 샌드 크래프트】

- 기간: 4 ~ 8월 매주 토 일요일 10:00, 16:00
- 장소: 꿈담 1층 누리울
- 참여대상: 5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
- 주요내용: AR과 아날로그를 다룬 체험형 디지털 모래놀이 (회화 15분, 총6회)

【토요일엔 도서관 Day! 토요일독서단】

- 기간: 4 ~ 8월 첫 번째 토요일 14:00 ~ 15:30
- 장소: 해담 1층 책2 강좌실
- 참여대상: 초등저학년 15명
- 주요내용: 일반 선정서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체험하기

마산회원도서관

한반에 읽어들이는 책다발서비스

- 기간: 3월 ~ 12월
- 장소: 마산회원도서관서초 어린이자료실
- 참여대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정
- 참여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평일)신청
- 주요내용: 7개 주제 분야 양질의 아동전집도서 30대를 2주 단위로 4주간(28일) 대출

진해도서관

정보 취약 계층 책 읽어주기 방문 프로그램

“책소리 세상소리”

- 기간: 3. 2. ~ 11. 24.
- 장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배어린이집
- 참여대상: 시각장애인 12명, 장애인 어린이 10명
- 주요내용: 진해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등 운영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19명)

창원중앙도서관

2023 창원의 책 독후감 전국 공모전

- 기간: 5. 1. ~ 9. 10.
- 참여대상: 전국(만14살, 청소년, 어린이)
- 주요내용: 2023 창원의 책을 읽고 독후감 및 독후감 공모
- 시상금: 전체 700만원

성산도서관

성산인문학

- 기간: 3. 7. ~ 7. 26
- 장소: 성산도서관 성산홀
- 참여대상: 성인 60명
- 주요내용: 실 속에 스며드는 인문학 강의
 - 한의학에 스며드는 인문학(3.7.~4.4.)
 - 항기 속 인문학(5.2.~5.30)
 -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읽는 심리학(7.5.~7.26.)



최윤덕 도서관

우리가족 한달서재

- 기간: 3월 ~ 12월
 - 장소: 최윤덕도서관 1층 로비
 - 내용: 시민이 직접 도서를 추천하고 꾸미는 코너 운영.
- 2023년 사전 신청 받은 5가목이 참여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그림책으로 보는 소문 인문학

- 일시: 4. 1.(토) 14시 ~ 16시
- 장소: 강의실
- 참여대상: 지역주민
- 주요내용: '책' 하루만 평범했으면, 등의 도서를 집필한 여행가 태형준과 함께 국내 북투 같은 여행지에 대해 강연

꿈이랑 도서관

요리로 배우는 우리고장 통영

- 기간: 4. 1. ~ 4. 8. 매주 토 14:00~16:00
- 장소: 통백의 주방
- 참여대상: 초등고교 4 ~ 6학년 12명
- 주요내용: 우리고장에서 나는 재철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실습 체험

통영시립 송루도서관

쉽고 재미있는 생활 속 명리심리

- 기간: 2. 16. ~ 4. 20. 매주 목 10:00~12:00
- 장소: 통영중앙강화실
- 참여대상: 성인 20명
- 주요내용: 생활 속에서 가깝게 다가가는 실재의 사주명리를 알아 봄

디지털 드로잉

- 기간: 3. 11. ~ 4. 8.
- 장소: 통영중앙강화실
- 참여대상: 초등 4~6학년 10명
- 주요내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드로잉 기초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인문학센터 프로그램

- 기간: 3월 ~ 10월
- 장소: 하동도서관 강좌실 및 관내 초등학교
- 참여대상: 일반 및 초등, 학부모
- 주요내용:
 - 설전강, 삶을 키워다 (1 ~ 4차시)
 - 반갑다, 두꺼비야!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사와 인간과의 관계
 - 열등 위기 동물 이야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그림책으로 보는 소문 인문학

- 일시: 4. 8.(토) 14:00 ~ 16:00
- 장소: 함안도서관 3층 함주홀(시청각실)
- 참여대상: 중학생 이상 지역주민 70명 이내
- 주요내용: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며 나의 소풍길과 올바른 소통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2023년 칠원도서관 어린이 역사탐방

- 기간: 6월
- 장소: 함안군 일대
- 참여대상: 초등 4~6학년
- 주요내용: 함안군 내 문화 및 역사 탐방으로 우리 함안 체험하기

함양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3월 ~ 7월
- 장소: 중학교(교실, 학교도서관)
- 참여대상: 중학생(1학년)
-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및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진로탐색(직업교육-사서)

▶ 환경교육(환경교육-체험)

▶ 환경과 지구를 위한 올바른 선택

▶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환경문제의 대처법



함천

경상남도교육청 함천도서관

매일 쓰는 줄거울 - 일기와 필사

- 일시: 4. 15.(토) 10:00~12:00
- 장소: 함천도서관 2층
- 참여대상: 청소년 및 성인
- 주요내용: 조경국 작가 강연 및 북토크

아이의 마음 성장을 도와주는 자람터

김유리 이용자

클마당 01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저는 책 속에서 마음의 성장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자고 하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만큼 다양하지 않을까 합니다. 책 속에는 자라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가득하고 사회적 경험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배워나가면서 성취감, 자존감, 인내, 집중력 등을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독서에 대한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준 곳이 바로 하남도서관이었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도서관이 너무 좋다고 항상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주 찾아가면서 벌써 5년 동안 들르게 되었는데요. 유아기부터 도서관에 가는 이제는 유치원을 마치고 나면 도서관에 갈 생각에 신나는 모습에 기특하다고 하고 저도 같이 책을 읽고 못다한 업무를 보기도 하니 일석이조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요. 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소중한 의견이나 마음을 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독서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일상에 변화를 준
하남도서관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이나 가족 간에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배제해선 안될 요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거나 같이 활동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천 두말없이 바로 책읽기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할 기회를 준 것, 모르는 단어들이나 호기심이 늘어나 질문이 늘어나는 것,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스스로 배워가는 것, 책 읽으면 행복해요라고 말하게 된 것, 소소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생겼다는 것, 부모와 소통할 주제가 다양해졌다는 것과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기보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 등 저나 딸아이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따뜻한 배려로 질문하고 답변을 골라지 들어주시기도 하니 아이가 자라면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마음을 설명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온정을 느끼고 마음이 자라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보다도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책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접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이곳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오래전 한 강의의 내용 중 일부분인데요. 한 교수님께 질문자가 "바쁘신 일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책을 읽으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냥 읽다보니 매일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구나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를 해두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다보니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제약없이 그냥 일상에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시간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읽어보니 저는 독서라는 취미를 즐기게 되고 아이는 열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책을 멀리하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낸 시간이 주었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듯하네요.

앞으로 오지 못할 불가피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꾸준히 하남도서관을 찾아올 계획입니다. 책을 다 읽고 집에 오고 나면 또 취미로 책을 읽는 말을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목이 쉬어도 읽어주고 잠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이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사도 알게 되면서 더욱 아이의 깊은 마음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세상에 나서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거라 느껴집니다.

아이의 모든 호기심을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신기해하고 현실과는 또 다른 상상의 세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났습니다. 즐겁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도서관 휴관일 날은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읽을까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소중한 즐거움을 딸아이의 마음을 한층 더 자라게 합니다.

저의 일상에 변화를 주신 하남도서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실 담당 사서의 고민

심경미 사서

글마당 02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첫 발령을 받고 신규 사서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1년 동안 나는 어린이실 담당자로서 다양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했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서의 업무는 강사를 채용해서 단순 기획만을 할 수도 있지만 기획에서부터 수업 진행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독서 동아리는 담당 사서가 기획에서부터 수업까지 맡아서 한다.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고민이 많았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경험은 많았지만 타인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말을 이어가고 소통하며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린이 독서 동아리를 신청하는 어린이들은 본인인 책 읽기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부모님께서 신청해서 동아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어린이 때문에 주도적인 책 읽기와 주제적인 생각 나누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을

아직 부족한 신규사서지만
어린이 친구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과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로 얘기할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들이 정답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주입되는 시간들이 될까 봐 우려스러웠고 매월 주제 도서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어휘 선택까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고민과 준비 시간을 가졌에도 작은 한 해를 되돌아 보았을 때 가장 부족한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어린이 친구들과 독서 동아리 수업을 진행했다. 여전히 가장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긴 시간 동안 유대 관계를 이어와서인지 아이들에게 느끼는 애착함도 크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뿌듯함도 더 크게 다가온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신규 사서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 어린이실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사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고민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개관 즈음에

황동훈 사서

새로운 옷을 입은 함안도서관은
앞으로 아이들의 마음 속
별과 희망이 싹 틔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함안도서관이 33년 만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중 가장 낙후된 시설 속에서 그동안 주민들은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없었다. 수년 전부터 이용자 설문을 하면 '어린이자료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책 찾기가 불편하다',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최근에 지어진 인근 도시의 번듯한 도서관들에 비하면 많은 것이 부족했다. 사서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도 낡은 건물 속에서 함께 빛이 바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게 함안도서관은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했다.

본격적으로 도서관 이전 작업을 시작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구입하고, 조경을 하고, 사인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좋은 공간이 탄생하는 듯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나무만 보듯 한 과정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겼다.

글마당 03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건축공사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거치며 쓸모없게 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은 생겨났다.

나를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위해도 문제는 있었다.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BF인증과 소방법 등 일련의 법과 제도들이 해놓은 것들을 추가했다. 아름다운 공간을 구성하려는 노력에 많은 열로우 카드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지어졌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주문은 이번에도 통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고, 주민들은 우리의 정성이 깃든 공간을 이용할 것이다.

머칠 뒤 불이 오면 이용자의 반가운 인사와 격려의 말에 우리는 감사히 화답하고,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겠지. 함안도서관에 새 술을 끌어넣던 노력도 한 때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새 함안도서관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 속 별을 띄우고, 청년들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도약과 모성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일하는 곳은 2011년 개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역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도서관이다. 굉장히 익숙한 곳이라 여기서 일하게 되어, 그리고 그중에서도 문화행사를 맡게 되어 얼마나 기쁘는지. 나는 하고 싶은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간파한 것이 있었다.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를 향한 것이며,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문화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 서비스에 익숙지 않았다. 그전까지는 인력난으로 도서관의 정상적 운영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행사 운영에 많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했고, 다른 것보다 홍보에 공을 들였다. 보도자료는 기본이고, 이장 회의 자료, 군정홍보용 LED, 도서관 SNS 등을 활용 중이다. 젊은 층이 목표라면 온라인 홍보도 효과가 있지만, 이 지역은 아무래도 노년층이 많다 보니 오프라인 홍보 또한 효과가 있어 현수막을 보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다.

나에게도 즐거운 공간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키워나가고 싶다.

이제 3년차 사서인 지금, 지역 주민들은 조금씩 도서관을 인지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전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물론 우리 도서관에서도 다른 도서관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한다. 그러나 도서관에 눈을 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이고, 그런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배워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이용자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과 조금씩 높아가는 이용자 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동문 한 분이 칠원초등학교 도서관 건립을 해 주셔서 당시로서는 훌륭한 시설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제는 좋은 직원들과 동네 친구 같은 칠원도서관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듯이 우리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키워나갔으면 한다.

도서관이 모든이에게 즐거운 공간이기를

주미진 사서

글마당 04

원안군립
칠원도서관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이수민 주말근로자

글마당 05

경남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근거리는 기운 맞이하요. 입을 열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맑은 마음이 온 공간을 떠다닙니다. 통쾌함을 얻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꼬마 손님, 아이에게 무슨 책을 골라줄까 이리저리 서성이든 아빠. 책장에 꽂힌 책들도 덩달아 긴장합니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이야기들을 뽐낼 기회가 왔으니까요.

자그마한 손바닥으로 책을 켜고 도서관 앞에서 서요. 달콤할 말하 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대출에 성공합니다.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책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골랐을까요.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책을 기게 대면 뵈, 하고 침을 얻을 수 있듯이 책을 빌리는 사람들의 뿔이악기도 뻗리, 하고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은 비단 책뿐만은 아니겠지요. 책 속에 담긴 꿈과 미래도 함께 빌리는 것이겠지요. 돌아온 책들은 사람들이 꿈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또 다른 이에게 씨앗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책이 저마다 품고 있는 나무들이 책장을 뚫고 나와 온 열매를 푸르게 하네요.

그 그늘에 앉아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공통로 걸어 다니고, 기차도 지나가네요. 저는 조용히 그들만의 여행을 구경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무사히 지나간 듯합니다. 또다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네요. 근질근질했던 마음을 펴고 회원증을 티켓 삼아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오시겠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꿈의 정거장,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책 속에 담긴
꿈과 미래를 빌릴 수 있는
도서관으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의 선물

변순경 이용자

클매당 06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린 매화나무들. 그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온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다다.
도서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현관 게시판 앞에
서서 상반기 문화 프로그램
안내를 읽어 본다. 주중의
근무시간과 겹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정년퇴직 후예라도 꼭 듣고
싶은 강좌로 '인생의 나침반
타로'를 찍어온다.

사서 선생님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며 읽은 책을
반납한다. 자료실 앞쪽으로
배열된 종로, 사회과학
서가를 지나 문학서가로
간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주말 독서의
즐거움은 언제나
나에게는 선물이다.

『토지』 19, 20권을 골라
자가대출반납기 앞에 서서
순서대로 천천히 버릇을
누른다. 빌린 책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서가 사이를
걸어 본다.

예전에 읽어 본 책들을 다시
꺼내 보기도 하고 신간
도서와 추천 도서 코너를
둘러보며 다음번에 읽을
책을 미리 정해 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살짝 훑어볼 때도 보고.
아는 사람은 읽나 고개를
둘러보기도 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희망도서
신청해 볼까? 꼭 필요한
책들은 인터넷이나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지만

누구나 많이 읽었으면 하는
좋은 책들을 도서관에
신청하면 독서의 즐거움을
두루 나누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진다 한다.

주말 오후의 파스한
햇살이 자료실을 반쯤이나
채워가고 있다. 언제나
내 마음을 기분 좋게
간질이는 은근한 책향기를
뒤로하고 자료실을 나선다.
바로 앞, 하늘 높이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나무
아래에서 선을 갈은 토요일
오후를 가만히 앉아 본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토요일
오후는 언제나 나에게 큰
선물이다.

경남지역공공도서관목록

지역	도서관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lib.gne.go.kr/
	거제시립수암도서관	639-3891	
	거제시립마우도서관	639-7320	
	거제시립곡포도서관	639-3881	http://lib.geogje.go.kr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71	
거창	거제시립합천도서관	639-3861	
	거제시립하천도서관	639-3921	
	거창군립합천도서관	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http://glib.gne.go.kr
고성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www.goseong.go.kr/glib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http://g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30-9800	http://g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http://lib.gne.go.kr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http://lib.gimhae.go.kr/main.web
김해	김해율하도서관	340-7161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김해진양현도서관	330-4810	http://lib.gimhae.go.kr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김해창광도서관	330-2991	
남해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4	http://nhlib.gne.go.kr/
	남해화진도서관	860-3871	http://www.namhae.go.kr/lib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http://mr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91-1848	http://nhlib.gne.go.kr
	밀양시립도서관	359-6036	http://www.mylib.or.kr
산천	밀양시립명암도서관	359-6045	http://eng.mylib.or.kr/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http://sa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산천도서관	835-4436	http://scplib.gne.go.kr
	사천시립이문도서관	831-2966	http://ek.sacheon.go.kr/
	경상남도교육청 산천도서관	973-2544	http://sanlib.gne.go.kr
산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4-1611	http://s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04	http://yslib.gne.go.kr
	양산시립삼척여인도서관	392-5936	
	양산시립서창도서관	392-5880	
	양산시립영암도서관	392-5940	
양산	양산시립합천도서관	392-5940	
	양산시립합천도서관	392-5870	http://slib.yangsan.go.kr
	양산시립웅상도서관	392-5950	
	양산시립중앙도서관	392-5900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http://urlib.gne.go.kr

지역	도서관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진주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1	http://jinlib.gne.go.kr
	마하어린이도서관	753-9922	http://www.mahaci.com
	남부어린이도서관	749-5985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창녕	진주시립도서관	749-5983	http://lib.jinju.go.kr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혁신어린이도서관	749-7490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http://njlib.gne.go.kr/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http://cnlib.gne.go.kr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http://www.cng.go.kr/ysl.web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54-4811	http://www.gyeongnam.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51	http://ms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도서관	252-3860	http://jlib.gne.go.kr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4	http://jd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278-2800	http://cwlib.gne.go.kr
	고령의봄도서관	225-7371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351	
함안	마산합포도서관	225-743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3	
	창녕도서관	225-7326	http://lib.changwon.go.kr
	상남도서관	225-7411	
	상남도서관	225-7391	
통영	의왕도서관	225-7331	
	충효충효합치도서관	225-7492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회룡도서관	225-7391	
	진해도서관	225-7511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1	http://tylib.gne.go.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통영시립도서관	650-2500	http://www.tongyeonglib.or.kr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4580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95	http://hd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ilb.gne.go.kr
	함안군립합천도서관	880-3647	http://www.haman.go.kr/chwonlib.web
	함안군립합천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함안군립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ib.gne.go.kr

「도서관 가는 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도서관 가는 길을 읽고
후기,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ara0730@korea.kr

